

윤교수님 특강 요약

진정성은 자신이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심지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다. (true to oneself)

진정성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생에 걸쳐 검증을 받아야하는 일이지만, 가장 궁극적인 진정성의 검증 과업은 나의 존재목적(purpose)에 대한 검증이다. 이것이 분명할 때만 삶의 주인공의 자격을 획득한다.

2. 무주공산에 주인으로 사는 삶

Authenticity
=
True to
Oneself

진정성의
끝간 곳

목적:
왜 주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목적에 관한
Objective
Function:
상수,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잡동서니 고전 인문학]
원래 있던 그대로, 자연의 모습대로 살아가라
글 황미숙 '문명고전작은도서관' 지기 일러스트 김병하

당나라 임제
선사

수처작주 입
처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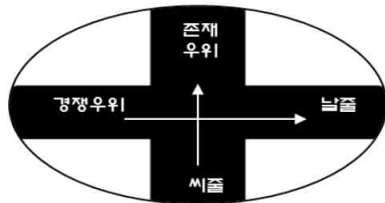
隨處作主 立
處皆眞

CEO로 통크
한 사람들의
공통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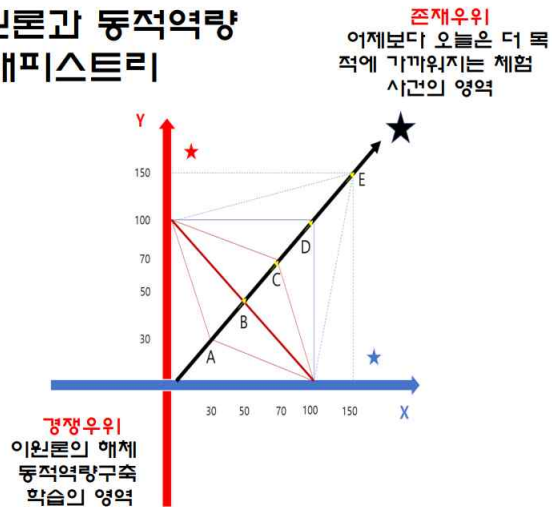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목적을 갖고 삶을 최적화시키는 삶을 매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주공산에 주인이 될 수 있다. 스탠포드와 그린피크 연구의 결과, C레벨 리더들의 핵심 성공요인은 'self-awareness : 자기자신이 누구인가를 이해하고 여기에 몰입' 한 때문이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곳에 주인이 되면 거기가 모두 진리의 자리다.)

3. 이원론과 동적역량 태피스트리



씨줄과 날줄의 직조
존재우위: 나침반
경쟁우위: 네비게이션



경쟁우위의 날줄과 존재우위의 씨줄이 직조될 때 진성리더십을 구현할 수 있다. 문제해결력을 가진 네비게이션과 삶의 궁극적 좌표(목적)를 가르키는 나침반이 직조되어야 리더십이 실현된다. (존재우위란 삶의 끝나는 순간까지 자신의 존재목적에 다가가는 체험이 일어나는 것. 자기 존재의 대체불가능성을 의미함)

이원론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양극을 직각으로 하여 새롭게 만나는 지점들 중에서 보다 높은 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창조적인 솔루션이고, 이런 역량을 동적역량이라고 한다. (B-->C--> D-->E). 존재우위 방향으로 이 정점을 확장시켜갈 수 있을 때 진정한 존재우위가 실현된다.

리더십의 정의

경쟁우위와 존재우위의 직조를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태피스트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변화를 완성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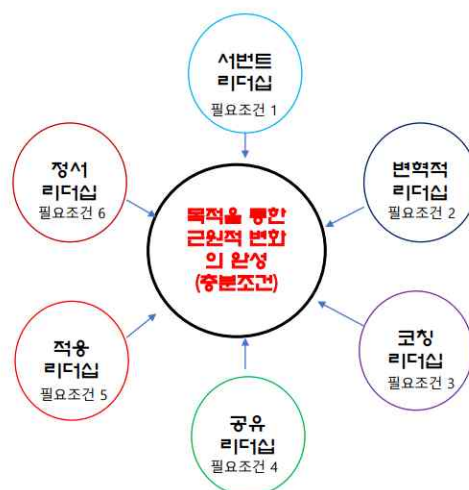
진성리더십(Authentic Leadership):
존재우위 (Root Leadership)
리더십의 충분조건
길을 잃지 않기 위한 원심력

리더십 스타일: 경쟁우위
리더십의 필요조건
변화하는 환경을 위한 구심력

존재우위와 경쟁우위의 직조를 통한 태피스트리

리더십의 자유도: 진정성이라는 구심력이 스타일의 원심력을 제어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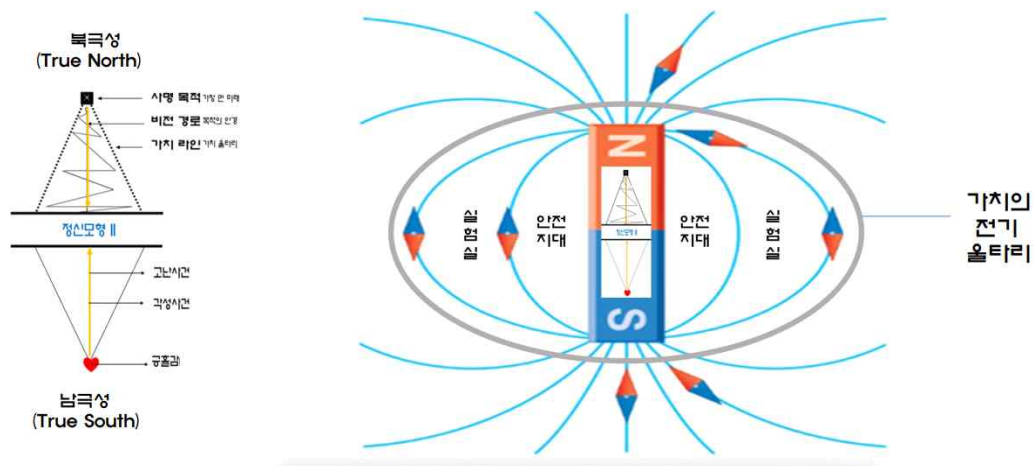
진성리더십 태피스트리



리더십의 많은 스타일은 리더십의 필요조건일 뿐이다. 하지만 진성리더십은 충분조건에 관한 이야기다. 변혁적/카리스마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코칭리더십, 공유리더십, 적응적 리더십, 정서적 리더십 등 상황에 따라 가변하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목적지에 대한 믿음이 빠져있다면 리더십 스타일로는 약속한 목적을 실현 수 없다.

이 두 조건을 직각으로 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리더십을 창조하고 이를 통해 변화를 완성할 수 있을 때만 진성 리더십이 구현된다.(변화를 만들고 이를 체험하게 하는데 리더십의 효과성이 있다.)

4. 존재우위 나침반



나침반이 있어야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고, 언제든 새로운 지도를 그려낼 수 있다. 전성리더는 나침반이 있기 때문에 더 멀리, 깊이 볼 수 있고, 변화무쌍한 시대에서도 명징한 지도를 그려낼 수 있다.

나침반은 북극과 남극에 의해 자기장을 만든다. 북극은 목적이고, 남극은 공허감이다. 공허감은 타인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체험해, 이를 해결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공허는 empathy, sympathy의 수준을 넘어 고통의 원인을 찾아 행동 수준에서 해결책을 찾아나간다. compassion의 passion은 '고통을 받다'라는 의미다. 이를 함께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compassion이다. 목적의 북극과 남극의 공허가 단단할 때 자장을 만드는 프로세스가 작동하게 되고, 이 범위로 가치의 울타리를 만들면 심리적 안전지대가 만들어진다. 그때 우리는 다양하고 과감한 실험을 할 수 있다.

세상의 울타리 중 가장 느슨한 울타리는 법의 울타리이고, 이보다 더 엄격한 울타리가 상식의

올타리다. 이 둘은 타인에게 침해를 주지 않으려는 윤리성의 올타리다. 진성리더의 올타리는 이것들과 달리 가장 엄격한 가치의 올타리를 가지고 있고, 이 올타리 안에서 약속을 실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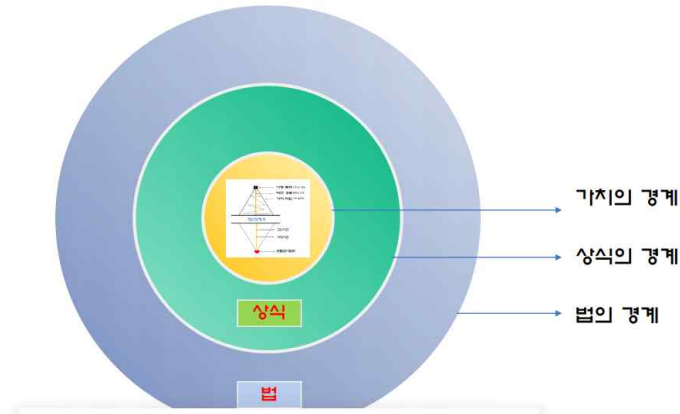
5. 착함과 선함

경계의 역설

상식, 법:
Negative
Externality
윤리의 영역
정치 커리큘
토글

가치:
Positive
Externality
선함의 영역

비밀결사대



목적이 약속한 변화를 이루어, 이제 떠나도 된다고 느낄 때가 윤리적 자유다. 세상에 대한 채무를 다 갚아 정산이 끝나 자유로워진 상태가 우리의 궁극적 모습일 것이다. 윤리적 자유가 실현될 때 비로소 후배들에게 씨줄을 남겨줄 수 있다.

윤리적 자유

목적에서 약속한 변
화를 다 이뤄 남길 유산
에 대한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원하면 언제든
홀홀 털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자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28-30



진성리더십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낯선 것일지 모른다. 우리가 유전자 복권이라는 안전지대에 머물 수도 있지만, 이를 벗어나 모험을 시작해 변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목적지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존재목적에 의한 올타리가 단단하게 쳐질 때, 그것이 심리적 안전지대가 되고,

경계를 넘어 변화와 도전을 위한 실험실이 만들어진다. 계속되는 경계를 탈출하는 디아스포라가 가능해진다.

(diaspora는 특정 민족이 자의적이나 타의적으로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집단을 형성하는 것, 또는 그러한 집단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는 낯설음을 위해 디아스포라를 감행할 용기가 있는가?

6. 낯 설음: 경계가정의 해체를 통한 디아스포라

가스 라이터(gas lighter): 의존성 심화



셰르파 셰이퍼(sheper shaper): 윤리적 자유

